

# 광주 장애인선수들 각종 대회 선전...전국체전 기대된다

### 보치아 강선희 금·김에스터 은 배드민턴선수권 금 1·은 4·동 3 탁구대회 금 2·은 3·동 1 수확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소속 2022년 국가대표 강선희(보치아)와 이정수(배드민턴)가 전국대회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1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강선희(BC3)가 최근 충주보치아전용구장에서 열린 제5회 충주사과배 전국장애인 보치아대회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에스터(BC4)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강선희는 2020 도쿄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예진(충남도청)과 겨뤘 3-2로 승리했다.

김에스터는 보치아를 시작한 지 2달 밖에 되지 않았으나,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획득, 화제를 모았다.

광주시 선수단 12명은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배드민턴 선수



제5회 충주사과배 전국장애인 보치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강선희(가운데).

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따냈다.

박인철·김선열(좌·우)은 복식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들은 단식에서도 각각 은메달과 동메

달을 획득했다.

이정수(SU5)는 단식 결승에서 김기연(서울의료원)에 13-21, 11-21로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이수현과 조를 이룬 복식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정길(가운데)이 제11회 인천시장애인 탁구대회에서 서브를 넣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이정수는 현재 전대사대부고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그는 2021 바레인 장애인아시아 청소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현재 이천훈련원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광주시장

장애인체육 주축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 김현달·조병만(SL3, 4)은 복식에서 은메달을, 조영철·문봉길(휠체어)은 복식에서 동메달을, 정다진·박서진(지적장애)이 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시 장애인탁구 선수단도 전통 강호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이들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인천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인천광역시장애인탁구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김성욱(TT7)과 김정길(TT4)은 금메달, 남기원(TT1)과 김영건(TT4)은 은메달의 주인공이었다. 이밖에 이준(TT3)이 은메달, 박래화(TT5)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시장애인 선수단은 오는 10월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 19일~24일)에 출전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국 아시아 U-18 남자핸드볼 8년만에 우승

### 이란 꺾고 통산 3번째 정상

한국 18세 이하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제9회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1일(한국시간)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이란과 결승에서 26-22로 이겼다. 이번 대회를 6전 전승을 마친 한국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이 대회 패권을 탈환했다.

18세 이하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이 대회에서 한국은 1회 대회였던 2005년과 2014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 전까지 한국은 카타르, 바레인과 함께 2회 우승으로 이 대회 최다 우승 공동 1위였으나 가장 먼저 세 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우승 이후 2016년 3위, 2018년에는 조별리그 이라크와 경기 도중 '고의 패배' 혐의를 받아 실격당했다. 2020년 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다.

한국 18세 이하 핸드볼은 여자 대표팀이 지난달 북마케도니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우승하는 쾌거를 달성했고, 이번 남자 대표팀은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서는 남보를 전해왔다.

남자 대표팀은 2023년 크로아티아에서 열리는 19세 이하 세계선수권에 출전한다.

최근 남자 핸드볼은 바레인, 카타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세의 급성장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도 고전해왔다.

올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성인 아시아 선수권과 7월 바레인에서 열린 20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에서 한국은 모두 5위에 그쳤다.

조별리그 맞대결에서 29-24로 물리쳤던 이란을 결승에서 다시 만난 한국은 전반을 14-11로 앞섰



한국 18세 이하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1일(한국시간)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이란과 결승에서 26-22로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은 현지 교민, 팬들과 기념 촬영하는 한국 선수단.

고, 후반 들어서는 한때 7골 차까지 간격을 벌리며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거뒀다.

대회 최우수선수(MVP)에는 최지환(삼척고)

이 선정됐고, 대회 베스트 7에는 김현민(남한고)이 골키퍼 부문 수상자가 됐다.

/연합뉴스

## 김연경 효과...프로배구 컵대회 복귀전 시청율 1위

김연경(34·흥국생명)의 복귀전이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 컵대회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배구 여제'의 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1일 발표한 프로배구 컵대회 결산 자료에 따르면, 김연경이 한국 무대 공식 복귀전을 치른 지난달 13일 흥국생명 IBK 기업은행의 경기는 시청률 1.78%를 찍었다.

시청률 2위(17일 GS칼텍스전·1.29%), 3위(19일 한국도로공사전·1.22%) 모두 흥국생명 독식했다. 입장 관중 수에서도 흥국생명은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17일 GS칼텍스전에 이번 대회 남녀부 통틀어 가장 많은 3천978명이 찾았고, 개막전인 13일 IBK기업은행전은 3천795명이 입장해 흥국생명 과 김연경에 대한 팬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

다. 여자부 총관중 수는 2만5552명이었고, 경기별 평균 관중은 212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여자부 평균 시청률은 0.99%로 2020 도쿄 올림픽 여자배구 4강 신화 직후에 치러진 지난해 평균 시청률인 1.28%보다는 0.2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부 평균 시청률은 지난 대회의 0.87%에서 소폭 상승한 0.89%를 기록했다.

남자부 최고 시청률은 27일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의 준결승전으로 1.12%였다.

/연합뉴스

## 허들 김경태 실업육상챔피언십 초대 MVP 세단뛰기 장흥군청 김장우 도약부문 1위에

올해 창설한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 초대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김경태는 1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끝난 농민사랑@2022 전북익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대회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받아 MVP에 선정됐다.

그는 8월 31일 열린 남자 110m 허들 결선에서 13초92의 2022년 한국 최고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고, 랭킹 포인트 1479점(순위 300점+기록 1179점)을 받았다. 전 종목 선수 중 최고 점수였다.

올해 한국실업육상연맹은 '개별 대회'를 '시리즈'로 묶는 작업을 했다.

'한국형 다이아몬드리그'의 시작이다.

3월 30일에 열린 여수 1차 시리즈, 4월 대구 중별육상선수권, 5월 초 나주 2차, 5월 말 익산 3차, 7월 고성 4차 시리즈 등 5개 대회 결과를 집계해 익산 챔피언십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했다.

이번 대회 단거리(남녀 100m, 200m, 400m 허들, 여자 100m 허들, 남자 110m 허들), 중·장

거리(남녀 800m, 1500m, 5000m, 3000m 장애물), 도약(남녀 멀리뛰기, 세단뛰기,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투척(남녀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해머던지기) 부문 상금(1위 400만원, 2위는 200만원, 3위는 100만원)도 책정했다.

부문별 순위는 세계육상연맹 스코어링 테이블로 계산한 포인트로 정했다.

단거리 부문별 1위이자 전체 종목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받은 김경태는 MVP 상금 200만원을 추가로 챙겨 총 600만원을 받았다. 중·장거리에서는 여자 800m에서 2분07초63으로 우승한 신소망(29·익산시청)이 차지했다. 신소망의 랭킹 포인트는 1330점(순위 300점+기록 1030점)이었다.

도약 부문 1위는 김장우(23·장흥군청)였다. 김장우는 남자 세단뛰기에서 16m73으로 1위에 올라 랭킹 포인트 1436점을 얻었다. 정지혜(24·포항시청)는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56m62로 우승하고, 랭킹 포인트 1409점을 얻어 투척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전역 신고' 이상혁 "많이 배우고 성장한 시간"

### 1년 6개월 군 생활 동안 세계 최정상급 점퍼로 도약

'스마일 점퍼' 이상혁(26)이 유럽에서 전역 신고를 마쳤다.

이상혁은 1일 유선으로 전역 신고를 마친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년 6개월 군 생활 동안 많은 게 바뀌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며 "예비역' 이상혁으로 더 좋은 모습,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 레츠고 우(Let's go WOO)"라고 썼다.

이상혁의 공식 전역일은 9월 2일이다. 전역 신고는 하루 전에 한다.

그의 말처럼 이상혁은 군 생활 동안 세계 최정상급 점퍼로 도약했고 '한국 육상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었다. 이상혁은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기 전인 2021년 3월에 입대했다.

김도준 한국육상대표팀 수석도약 코치는 '군인 신분'의 절제된 생활이 이상혁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고, 이상혁은 김 코치의 입대 권유를 받아들였다.

입대 전 이상혁의 개인 최고 기록은 2m30이었

다. 1년 6개월의 군 생활 동안 이상혁의 최고 기록은 실외 2m35, 실내 2m36으로 크게 올랐다.

2017년 2m30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운 뒤 정제했던 이상혁의 기록은 2021년 6월 29일 2m31로 1cm 상승했다. 2m31을 뛰어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 본선행 막차를 탄 이상혁은 '본 무대'에서 2m35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한국 육상 트랙&필드 사상 최고인 4위에 올랐다.

이후에도 '군인 이상혁'은 주요 국제대회 시상식에서 태극기를 높이 세웠다.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 우승(3월 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2022 다이아몬드리그 개막 시리즈 우승(5월 14일 카타르 도하), 2022 실외 세계육상선수권 2위 등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군인 신분으로 작성했다.

이상혁은 "나는 군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 성장 과정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군 생활을 하면서 내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고 돌아봤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헌트
2관	헌트
3관	육사오(6/45)
4관	육사오(6/45)
5관	리미트
6관	육사오(6/45)
9관	한산: 용의 출현

7관 씨네캐플: 탐건: 매버릭, 불릿 트레인, 미니언즈2, DC 리그 오브 슈퍼-팻

8관 씨네캐플: 헌트, 비상선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 II  
**2인 가극 아파르트**

일시: 2022. 9. 19.(월) 19:30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35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2022. 9. 1.(목)~ 9. 30.(금)  
매주 수-일 17:00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 8372